

## 2023 최종합격 수기

■ 제목: 지방에서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은 꼭 읽어주세요.

#전업 수험생#인터넷 강의#성실성#전업 수험생#인터넷 강의#성실성

### ■ 하루 학습 계획 및 생활 패턴

- 저는 하루를 1시간 단위로 교시로 쪼개어 생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순공부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꾸준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항간에 '고시 공부는 매일 기복없이 꾸준하게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죠. 제 생활 관리법은 이러한 공부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혹여나 순공시간을 지키는 게 어렵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게 어렵다싶은 수험생이 있다면 반드시 저와 똑같은 루틴은 아니더라도 교시제로 생활해보는 것을 강력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 하루의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저는 매일 진도나간만큼 암기하고 현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암기 및 현출 위주의 공부법의 장점에 대해서는 후술하겠습니다.

### ■ 과목별 학습법 & 수강 강사 및 활용 교재

- 노동법의 경우, 독학을 하였습니다. 노동법은 암기해야 할 판례의 분량이 매우 많기에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포섭 연습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이는 암기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 인사노무관리론의 경우,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과목이었고 실제 2기까지 발목을 잡았으나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한대로 현출해야한다는 것을 깨달은 뒤로는 가장 좋아하는 과목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최종락 선생님의 이해 중심 강의가 많이 도움되었습니다.
- 행정쟁송법 역시 독학하였으나, 가끔 정선균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유는 행정쟁송법은 양이 적으나 조금만 어렵게 내어도 수험생 대부분이 나가떨어지는 과목이고로, 박사 출신의 모의고사를 어렵게 내는 선생님의 강의를 꼭 듣고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 민사소송법은 김광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원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출제경향에 맞추어 A급 중심의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노동, 행정과 달리 사례풀이 방식

이 독특하기에 이를 잘 알려주시는 사법고시 합격자 출신의 선생님을 꼭 듣고 싶었습니다. 김광수 선생님은 이러한 니즈에 딱 부합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 ■ 면접 준비 과정

공인노무사 3차 면접 시험의 경우, 불합격자가 손에 꼽을 정도이나, 그것이 매년 그러리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면접 준비 역시 밀도있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비록 면접 스터디는 하지 않았으나 스스로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하였고, 특히 주제의 측면에서는 이슈까지 챙겨가고자 하였습니다. 예컨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증가와 노동형태의 변화, 일자리 감소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 및 노무사로서의 역할등과 같은 주제입니다. 비록 이에 대해 질문 하시지는 않으셨으나, 준비해 간 이슈를 가지고 제 발언을 더욱 설득력있고 정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 ■ 수험생활 중 어려웠던 점과 극복 방법

수험이란 젊음을 잃고 고독을 얻는 것입니다. 저는 제 또래 친구들이 한창 연애를 하고 술먹고 자신의 청춘을 즐길 때 혼자 서재에서만 지내고 있다는 사실에 슬프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든 건 외로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쩔 때는 너무 힘든 나머지 시험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 방법은 당연 긍정적인 사고방식일테지만, 수험생활중 최종락 선생님과 김광수 선생님의 따스하고 유머러스한 강의를 들었던 것에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두 선생님은 다년차 강사님이신만큼 많은 수험생을 오래 보아왔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말씀, 공감이 되는 조언을 잘 해주십니다.

## ■ 합격으로 이끈 나만의 학습 전략 KEY POINT

우리 시험은 결과적으로 시험 전날에 각 과목별 두꺼운 기본서의 아무 장이나 펼쳐보았을 때 눈으로 보지 않고 줄줄 현출할 수 있어야 합격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여기서 암기와 현출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한 차례 외우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속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수십회 이러한 작업을 거쳐야만 전술한 것과 같은 수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2기때 까지는 타이핑으로 현출연습을 하였고, 그 이후 범위가 늘어난 뒤에는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서 머릿 속으로 현출해보는 연습을 하였습니다. 덕분에 현출도로는 단 한번도

고민해본 적이 없습니다.